

# 아파트와 여성 범죄로 본 자유 담론의 문화사(1982-2024)

전지니\*

1. 들어가며: 아파트와 여성의 자유
2. 아파트로의 이동과 성(性)의 해방
3. 여성 간 연대와 가부장제로부터의 이탈
4. 자녀 교육공동체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
5. 아파트 투자/투기 공동체와 신자유주의 도덕률의 체화
6.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대중문화 속 아파트의 표상을 여성 범죄라는 측면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이때 여성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비롯해 여성이 주도하는 범죄 모두를 아우른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통시적인 관점에서 아파트를 둘러싼 여성 범죄의 문화사회학을 고찰한다. 앞으로 아파트와 '자유'라는 모럴이 여성 대상 혹은 주도 범죄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며, 아파트를 둘러싼 여성의 범죄가 당대의 어떤 욕망을 보여주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논의 대상은 아파트로의 이동과 금기시되는 관계를 통한 성적 해방을 다룬 <애마부인>(1982)과 <적도의 꽃>(1983), 젠더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저항을 극화한 <개 같은 날의 오후>(1995), 계층 이동과 엄마들

---

\*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부교수

의 교육열을 극화한 <강남 엄마 따라잡기>(2007)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여성 범죄를 다룬 <위대한 방옥숙>(2019-20),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2024) 등이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아파트에 사는 인물들이 갈구하는 자유의 형태를 성적 자유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측면과 관련지어 논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범죄가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살핀다.

앞으로 텍스트가 발표된 시기와 조응하여 여성 혐오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들이 가부장제, 자본주의 질서 등 주류 담론에 편승하는 동시에 이를 해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간다. 이는 아파트라는 동시대 자본주의의 표상을 배경으로 투자와 투기, 범죄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경계에 놓여있는 여성 캐릭터의 불안이 보여주는 시대의 불안을 읽는 작업과 연결될 것이다. (주제어: 아파트, 자유, 여성 범죄, 계층 이동, 신자유주의, <애마부인>, <적도의 꽃>, <개 같은 날의 오후>, <강남엄마 따라잡기>, <위대한 방옥숙>,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

## 1. 들어가며: 아파트와 여성의 자유

본고는 대중문화 텍스트 속 아파트의 표상을 여성 범죄라는 측면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이때 여성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비롯해 여성이 주도하는 범죄 모두를 아우르며, 분석 대상은 범죄의 배경과 요인으로 아파트를 소환하는 일련의 텍스트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파트를 둘러싼 여성 범죄를 논하며, 시기별로 한국 사회의 욕망을 보여주는 '자유'라는 키워드가 젠더라는 문제와 접속하면서 한국인의 주거 및 자산 증식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파트 표상과 어떻게 맞물리는

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아파트를 둘러싼 ‘여성’ 범죄가 당대의 어떤 욕망을 보여주는지를 동시에 파악할 것이다.

아파트라는 주거문화와 여성의 삶을 연결 짓는 텍스트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이 많으며, 상당수는 간통죄 폐지(2015) 전까지 법적 제재 대상이었던 불륜이나 주민 간 분쟁 및 폭력이라는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본고는 이중 젠더 문제가 범죄의 속성과 관련하여 서사의 주요 동력이 되는 경우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간통죄 조항 폐지 이전 범법행위와 자유의 경계에 있는 여성들을 다루는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강간, 폭력 등을 주요 소재로 활용한 작품을 살펴본다. 이에 더해 ‘여성적인 것으로의 부동산’ 인식과 관련해 여성이 투기 및 살인, 살인미수의 중심에 놓이는 텍스트를 아우른다. 그리고 범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자리하는 여성 캐릭터의 욕망이 보여주는 시대성이라는 문제에 천착하여 여성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주요 논의 대상은 <애마부인>(이문용 각본·정인엽 연출, 1982), <적도의 꽃>(최인호 각본·배창호 연출, 1983) 등 1980년대의 경제성장과 편리성의 상징이었던 고층아파트를 배경으로 성적(性的) 해방을 다룬 작품부터 1990년대 확산된 페미니즘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개 같은 날의 오후>(이경식 외 각본·이민용 연출, 1995), 자식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동한 학부모의 교육열을 다룬 <강남엄마 따라잡기>(김현희 각본·홍창욱 연출, 2007), 투자·투기 수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인식을 반영하는 웹툰 <위대한 방옥숙>(매미 글·희세 그림, 2019-2020, 총 74화)과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유기 글/그림, 2024, 총 41화) 등이다. 그간 아파트라는 공간을 여성의 심리, 상황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본고의 경우 아파트가 여성 대상 혹은 주도 범죄의 주요 배경으로 자리하는 텍스트로 논의를 제한한다. 이상의 텍스트는 장르를

불문하고 젠더 문제가 범죄의 속성과 관련하여 서사의 동력이 된다. 특히 성적 해방, 여성 인권, 계층 이동 등 시기별로 화두가 되었던 여성의 자유를 표면화하며 그 욕망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범죄를 전경화한다는 점에서 통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신 이후 신군부의 경제 정책은 거시적인 면에서 물가 안정과 경상수지 개선, 미시적인 면에서 정부 개입 축소와 자유화로 요약된다. 신군부는 점진적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 규율을 도입하고자 했으며<sup>1)</sup> 경제 부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장악했고, 시장화와 민영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관료들이 정책을 지휘했다.<sup>2)</sup> 그 결과 신자유주의, 금융화, 금융종속과 대외 의존, 재벌·수출 주도 성장의 귀결이 가속화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의 구조 조정은 고용 불안, 노동 시간 연장, 자기 계발과 재테크, 출산율 저하, 자살률 증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삶에 대한 만족도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삶을 도래하게 했다.<sup>3)</sup>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해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당대의 경제 정책 및 사회 분위기와 연동한 자유라는 키워드가 텍스트 안에서 여성의 삶과 어떻게 접촉하면서 범죄라는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조망한다.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투기는 여성의 것으로 지목되었다. 전후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간주되었던 ‘사설계’의 여성 및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복부인’을 지명하며 이들을 “사기여인”으로 명명하는데, 이때 “윤리의 재건”을 강조하는 것<sup>4)</sup>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여성의 것으로

1) 이제민, 『외환 위기와 그 후의 한국경제』, 한울아카데미, 2017, 63-75쪽.

2) 위의 책, 115-116쪽.

3)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444-455쪽.

4) <복부인과 계 파탄>, 『경향신문』, 1979.10.26., 2면.

전가하는 것이었다. 아파트와 여성이라는 화두를 함께 논의한 연구로는 1970-80년대 대중서사 속 복부인 담론과 여성혐오의 문제를 연결지은 전봉관(2019)<sup>5)</sup>, 투기꾼에 여성혐오를 뒤집어씌우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성 감독이 제작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논의한 김주희(2019)<sup>6)</sup>, 인터뷰 방식을 통해 중산층 여성의 주거 생애사를 파악한 최시현(2021)<sup>7)</sup> 등의 논의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중 최시현은 여성들이 주택 실전을 통해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고, 정부의 주택 정책과 정상가족 담론 안에서 '좋은 주소'로 이동하기 위한 '주택 실전'을 하며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했으나 안정과 상승이동, 계급 재생산에 대한 불안 속에서 내적 모순을 가져왔음에 주목한다.<sup>8)</sup> 그 외 문학 연구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가정의 존재 방식을 '정치성'과 관련짓거나 그 속물성과 허위의식(오자은, 2012, 2013)을 지적하는 연구, "자유주의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문제성을 지적한 연구(황병주, 2017), '아파트 디스토피아' 담론을 재생산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자립과 협상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언급한 연구(유인혁, 2023) 등이 있다.<sup>9)</sup> 황지선의 경우 2010년대 부동산을 소재로 한 소설을

5) 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321-359쪽.

6) 김주희, 「'투기부인'이라는 허수아비 정치: 두 편의 사적 다큐멘터리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12권 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9, 111-148쪽.

7)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2021, 36-44쪽.

8) 여기서 '주택 실전'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 있는 여성들의 부동산 매매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이 행위가 가족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연속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다. 위의 책, 5-6쪽.

9)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231-256쪽;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 제164호, 국어국문학회, 2013, 489-518쪽;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박완서의 1970년대 저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0호, 상허학회, 2017, 85-144쪽; 유인혁, 「아파트 디스토피아를 다시 생각하기: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의 해방적

토대로 기존의 성별 이분법을 넘어 주택장에 뛰어든 남성 투기 주체와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대항 방식을 살핀다.<sup>10)</sup> “소설에 투영된 공간 표상 및 구성되는 공간성으로서의 의미망”에 주목해 아파트-스케이프 개념으로 박완서 소설과 로컬리티 문제를 논한 경우(정미선, 2017)도 주목할 수 있다.<sup>11)</sup>

본고의 주요 논의와 관련한 연구로 <적도의 꽃>과 관련해 배창호의 영화 이력을 논의하며 영화 속 범죄 행위의 문제성을 지적한 연구(이윤중, 2024) 1980년대 초반 시대상과 성적 해방, 여성의 신체라는 문제를 관련하여 언급한 연구(한영현, 2022) 영화 <애마부인>을 신군부의 정책적 산물로 이해하는 대신 1970년대 검열이 촉발한 외설적 상상력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연구(박유희, 2015)<sup>12)</sup> 등이 있다. 그 외 <강남엄마 따라잡기>의 캐릭터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덕화, 2009)<sup>13)</sup>, 1990년대 페미니즘의 해방 공간으로서 극 중 아파트 공간을 ‘헤테로피아’로 규정한 논의(모지현, 2024)<sup>14)</sup>는 아파트라는 공간성에 주목해 극 중 연대에 대해 논의한다는

전유와 거주하기의 상상력, 『인문연구』 제10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1-43쪽.

- 10) 황지선, 「불안 사회의 욕망과 주거 실현의 가능성-2010년대 이후 부동산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235-264쪽.
- 11) 정미선,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 박완서 단편소설을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제1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101-146쪽.
- 12) 이윤중, 「한국영화의 은자적 코스모폴리타니즘: 배창호의 <적도의 꽃>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17권 2호, 영화연구소, 202, 101-128쪽; 한영현, 「1980년대 스크린 에로티시즘과 신체의 카니발」, 『현대영화연구』 제45호, 현대영화연구소, 2022, 161-182쪽; 박유희, 「'검열'이라는 포르노그래피-〈춘몽〉에서 <애마부인〉까지 '외설' 검열과 재현의 역학」,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95-145쪽.
- 13) 이덕화, 「<강남 엄마 따라잡기>에 나타난 상상적 메커니즘」, 『새국어교육』 제8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705-724쪽.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웹툰과 관련하여 <위대한 방옥숙> 속 아파트, 부동산을 향한 여성의 이해관계와 작품 속 부녀회의 관계성에 주목한 논의(권김현영, 2020),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 속 부동산 범죄와 젠더 간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 범죄자의 욕망의 주체성에 대해 논의(전지니, 2024) 등이 있다.<sup>15)</sup>

이처럼 기존 연구가 여성적인 것으로 배치된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욕망을 사회학적, 텍스트 분석적으로 접근했다면, 본고는 영화와 드라마, 웹툰을 중심으로 여성 범죄의 중층적 특성을 짚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체성'이라는 측면과 관련해 여성 대상, 혹은 여성이 주도가 된 범죄의 계보를 살핀다. 곧 여성이 성적 해방으로부터 가시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을 넘어 계급 이동을 꿈꾸고 보다 온전한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라는 형상이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논의한다.

---

14) 모지현, 「헤테로토피아 공간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와 <꿈의 제인>을 중심으로」, 『현대문예비평연구』 제83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4, 137-159쪽.

15) 권김현영, 「[권김현영의 여자들의 사회] 웹툰 <위대한 방옥숙>, 아파트 부녀회의 세계」, 채널 예스, 2020.11.18.,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43368>. (검색일: 2025.03.15)

전지니, 「대중문화 속 부동산과 젠더 정치학」, 『문장웹진』, 2024.10.1., [https://munjang.or.kr/board.es?mid=a20102000000&bid=0004&act=view&list\\_no=102720](https://munjang.or.kr/board.es?mid=a20102000000&bid=0004&act=view&list_no=102720). (검색일: 2025.03.15) 그 외 개별 기사로 가수 로제의 노래 '아파트'의 전세계적 인기와 관련해 대중문화 속 아파트 표상의 변천과 관련해 최근 개봉작(<럭키 아파트>, <4분 44초>)을 논의한 사례가 있다. 정수진, <로제 '아파트' 말고 우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ize』, 2024.10.29.,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59>. (검색일: 2025.03.16)

## 2. 아파트로의 이동과 성(性)의 해방

이 장에서는 아파트로 이주한 여성들의 성적 자유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간통 문제와 함께 이들을 스토킹, 강간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시선을 다룬 영화 <애마부인>과 <적도의 꽃>에 대해 논의한다. 두 작품에는 모두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독신 여성 중 상당수가 편리함으로 인해 아파트를 거주 공간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셋값은 여자들이 올려놨다.”고 간주되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sup>16)</sup>

비슷한 시기 개봉된 두 영화는 안소영과 장미희라는 여성 배우의 ‘전라’ 노출을 내세워 홍보를 진행했다. <애마부인>의 홍보 문구는 “애마 부인에게 옷을 입혀라”였으며, 영화의 기록적인 성공은 가정주부의 일탈을 다룬 영화의 붐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 한 신문 기사는 “미혼여성이나 직업여성을 그럴 경우는 그 표현기법에 한계가 있는 반면 가정주부를 소재로 할 경우 강한 애정 표현이 용납되며 이들의 방향은 훨씬 쇼킹하게 전해지는 이점”<sup>17)</sup>이 있다고 설명한다. <적도의 꽃>의 경우 주인공이 법적으로 기혼 상태는 아니지만 아파트 안팎을 중심으로 가정 내에 여성 인물을 배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사 장면과 배우의 벗은 몸을 비중 있게 묘사한다.<sup>18)</sup>

16) 강상현, <아파트 밀집주거 시대 (9) 독신자들의 「천국」>, 『동아일보』, 1982.12.21., 3면.

17) 정(眞), <기혼녀 소재 영화 제작 붐>, 『매일경제』, 1982.03.01., 9면.

18) 아파트가 배경이 된 예로 영화와 관련하여, 1970년대 일본에서 아파트 건설이 증가되며 단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단지 처’ 영화들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의견도 있다. 김효정, <<애마부인>은 그저 말타는 야한 영화? 전두환이 한 일들: [야한 영화의 정치학 기 성애 영화의 신호탄, 그 안에 담긴 1980년대]>, 『오마이뉴스』, 2017.05.18.,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25543](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25543). (검색일: 2025.02.15)

주목할 점은 <애마부인> 등이 당대 '여성 해방' 기류를 반영한 영화로도 이미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 기사는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과 관련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애정 모델'을 그리는 작품들이 등장했다고 설명하며, 여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sup>19)</sup> 1980년대 초반은 서울 소재 몇몇 대학에 여성학 관련 강의가 개설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여성의식화운동'이 시작되던 시점<sup>20)</sup>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와 조응하여 가부장제를 넘어 불륜을 소재로 한 이들 작품이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모델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대상화를 넘어 다른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sup>21)</sup>

이와 함께 염두에 둘 점은 두 작품의 촬영은 모두 한강이 보이는 고층아파트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적도의 꽃>은 강남 개발의 상징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1970년대 후반 <야행>(1977) 등의 영화에서 중산층 여성의 방향을 보여주며 아파트를 스펙터클로써 전시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에로틱한 섹스를 포착하는 경우가 있었다.<sup>22)</sup>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애마부인>과 <적도의 꽃>은 강남 개발이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 아파트 안팎을 배경으로 뚜렷한 직업이 없음에도 돈에 구애

19) 주, <TV·영화 여성 해방 기류>, 『동아일보』, 1982.01.16., 11면.

20) 최환, <「보호받는 여성」사 벗어나야>, 『조선일보』, 1983.01.11., 6면.

21) 이윤중은 1980년대 한국적 특수성을 담은 미성년자 관람불가 대중영화를 “에로방화”라 지칭하며,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들 작품이 조국 근대화를 지향하는 ‘발전주의’와 이에 대한 대항발전주의적 진보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들 작품이 급진과 퇴행 사이를 오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윤중,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 198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진보적 양면성』, 두두, 2024, 12-25쪽.

22) 조혜영, 「근대적 욕망의 얼굴」, KMDB, 2024.02.02., <https://www.kmdb.or.kr/story/717/7696>. (검색일: 2025.02.14)

받지 않는 여성들의 일상을 볼거리로 포착한다.

당시 고층아파트가 있는 압구정동과 동부이촌동은 영화의 단골 촬영지로 선택되었고, 한강과 동호대교가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담기 위해 현대아파트 같은 호수(705호)에서 다른 영화도 촬영을 진행했다. 이 중에서도 <적도의 꽃>은 현대아파트 전경을 비추며 시작하고, 주요 사건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이 전경화된 작품이다. 아파트에서 바라본 한강과 동호대교 풍경은 <애마부인>에서 남편과 살던 양옥 주택을 나온 주부가 자유를 누릴 때도 다시 등장한다. 아파트의 넓은 주차장과 거주의 독립성,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대가족이 거주하는 기존의 가옥 형태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이자 해방이라는 경험을 선사한다. 동시에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공유하고 베란다나 공용 현관 등을 이용해 침입할 수 있으며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구조는 사랑과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 인물을 스토킹과 강간, 거주 침입 같은 범죄에 노출시킨다.

<애마부인>은 과실치사로 복역 중인 남편(임동진)과 차마 이혼하지 못하던 애마(안소영)가 순수한 미술학도 동엽(하재영)을 비롯해 옛 애인 김문오(하명중)를 만나는 이야기를 담는다. 애마는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우한 옛 애인 문오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동엽에게 진실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감옥에 있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한다. 문오와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견디지 못한 애마는 도시 밖에서 동엽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프랑스로 갈 것을 약속하나, 결국 그가 아닌 출소한 남편을 택하게 된다. 경제적인 자유를 확보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가정부인의 일탈을 그린다는 점에서 <애마부인>은 1970년대 호스티스 영화와 확연히 구분된다. 기존에 논의된 것처럼 애마는 홀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직접 운전을 하며,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여성이다.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지만 시댁에서 아이를 데

려갔기에 욕아에서 해방된 “새로운 여성 캐릭터”이자 “남성 중심의 일부 일처제가 붕괴 중임을 몸으로 선언하는 인물”<sup>23)</sup>이다.

애마의 일탈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것은 공간 변화다. 애초 애마는 남편과 살 때 2층 양옥에 거주했지만 그가 감옥에 간 후 고층아파트로 이사간다(그림 1). 극 중 애마를 적대시하는 시누이는 우연히 다른 남자와 있는 애마를 본 후 “혼자 아파트로 나가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랬군요.”라고 빈정거린다. 애마의 위층에 사는 문오는 계속해서 애마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만남을 호소하고, 밧줄을 활용해 베란다로 애마의 집에 침입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는다. 애마는 그 관계에 질려 동업을 만나 교감하게 되고 초가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극 중 세 남자와 애마의 관계는 2층 양옥(구 중산층 거주지), 한강변 아파트(신 중산층 거주지), 그리고 농촌 근교의 초가에서 이루어지며, 남편을 선택하면서 애마는 원래 거주하던 양옥으로 돌아간다.

주목할 점은 극 중 아파트가 80년대 여성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욕아와 살림 같은 주부의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토대처럼 등장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아파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애마의 성생활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구조상의 개방성으로 인해 애마가 문오의 성범죄와 맞닥뜨리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문오는 전화를 건다거나 애마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이어가고, 급기야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애마의 침실 안까지 침입한다. 결국 애마는 세 남자 중 남편을 택하면서 가정으로 복귀하고, 아파트에서 애마가 누린 해방도 덩달아 종료된다. 영화는 그렇게 고층아파트의 안팎과 여성 배우의 육체를 현시하며 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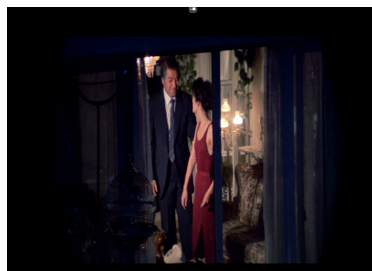
23) 김형성, 「[테마연재] 에로티시즘의 대명사: <애마부인> 프랜차이즈 연대기 (1) 80년대 한국영화, 카오스의 이색시대 ⑧」, 한국영상자료원, 2018.06.11. <https://www.kmdb.or.kr/story/8/1348>. (검색일: 2025.02.28.)

거리를 마련하고, 아파트 안에서 벌어진 여성 범죄의 문제성을 희석하면서 가학적 성관계를 여성이 자유를 찾아가는 단계에 배치한다.

배창호 감독의 <적도의 꽃>은 1980년대 주거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다. 영화는 로케이션 장소가 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원경으로 비추며 시작하고, 이윽고 그중 한 집 안으로 이동하여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수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미스터 M(안성기)의 시선으로 다가간다. 생활비를 보내주는 부모 밑에서 뚜렷한 일이 없이 소일거리를 하던 그는 망원경으로 다른 집을 들여다보다 이사 온 선영(장미희)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후 그는 선영의 일상을 훑쳐보고(그림 2), 그녀를 미행하며 집에 전화를 거는 데다 불륜 상대 성두(남궁원)의 아내에게 연락해 관계를 파탄낸다. 이어 선영이 만난 또 다른 남자 준한(신일룡)을 차로 치고, 선영에게 마저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학 행위를 이어간다. 결국 선영은 아파트 안에서 가스를 틀어 자살하고, M은 비탄에 빠진다.



〈그림 1〉 아파트로 이사진 애마  
(〈애마부인〉 중)



〈그림 2〉 선영의 사생활을 훑쳐보는 M  
(〈적도의 꽃〉 중)

미스터 M의 방황을 베트남전과 관련지었던 원작과 달리 영화 <적도의 꽃>은 목적의식을 상실한 그의 광적인 집착에 집중한다. <애마부인>과 마

찬가지로, 영화는 고층아파트 안팎을 비추며 당대 고급문화의 상징적 기호라 할 수 있던 것들을 배치한다. 선영의 집에는 고급 소파와 피아노 TV, 냉장고, 시스템키친 등이 배치되어 있고 M은 선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발레를 보러 가기로 약속하기도 한다. 영화는 신흥부층으로 떠오른 압구정동 일대의 풍경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현대적 슈퍼체인에서 장을 보는 것을 비롯해 압구정역에서 지하철에 타는 장면 등을 삽입하기도 한다.

여기서 아파트는 영화의 “숨은 주인공”이기도 하다. 극 중 선영의 직장 상사였고 재력이 있는 유부남 성두는 한남동 2층 양옥을, 삼성전자 대리점 사장인 플레이보이 준한은 평창동 저택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미스터M은 압구정동 고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sup>24)</sup>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주택의 형태는 세 남자의 계급과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성두와 준한이 각각 추구하는 가족관계의 안정성, 자유로운 삶은 이들이 사는 지역, 거주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M이 느끼는 고독의 배경이 된다. 1980년대 초반 아파트는 “정서적 안정감이 없는 공간”<sup>25)</sup>, “비사회적 성격을 만드는 주거 공간”<sup>26)</sup>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기도 했다.

당시 평론가 한영철은 미스터 M과 선영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와 관련해, 고립된 두 인물의 동질적 의미 부여를 위해 아파트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두 사람의 아파트는 선영의 직장 상사인 성두와 플레이보이 준한의 호화 저택과 대비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

24) 신은실, 「[한국영화결작선] <적도의 꽃>」, 한국영상자료원, 2013.08.23., <https://www.kmdb.or.kr/story/10/2034>. (검색일: 2025.03.02.)

25) 이시형, <중년여성-아파트 단절의 벽을 헐어라>, 『조선일보』, 1983.04.03., 6면.

26) 이연재, <고층아파트 병약한 동심 만든다>, 『경향신문』, 1983.03.11., 6면.

이 참사랑을 갈구하는 미스터 M과 선영, 그리고 불륜을 즐기는 성두와 준하이라는 대비되는 인물 구도와 맞물린다고 설명한다.<sup>27)</sup> 이처럼 아파트는 개인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물의 고립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기존 유산 계급 남성들의 거주지, 곧 안정된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폐쇄적인 양옥과 대비되는 새로운 거주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영화는 주거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한 아파트 구조 안에서 시설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드러내며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와 갈등이라는 측면을 아우르는데, 이것이 여성 대상 범죄와 연결된다. 특히 1980년대 아파트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 실내에서 자연의 풍경을 연출하고자 마련되었던 베란다라는 가해자의 몸, 시선이 유리창을 넘어 침입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sup>28)</sup>

〈적도의 꽃〉에서 선영은 유부남인 성두와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동시에 그녀는 미스터 M의 범죄 대상으로 자리하는데, M은 선영을 대상으로 스토킹, 가택침입, 폭력, 살인미수를 자행하며, 친구 설희에게는 신체 훼손, 강제 약물 주입 등을 감행한다. 이에 더해 선영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를 폭행하며, 플레이보이 준환을 살인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적도의 꽃〉은 “아파트 세대의 새로운 모럴과 숙명적 사랑”을 그린 영화로, M은 “문명의 메커니즘에 마모된 역명의 존재”, 선영은 “이기적인 사회에서 피해받고 파멸되는 방향의 희생물”로 간주되었다.<sup>29)</sup>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과 관계없이 모두 자본주의 문명의 희생양처럼 해석되었던 것이다. 선영에 대한 M의 사랑이 “원

27) 위의 글.

28) 1980년대 강남 아파트 단지의 특징과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2011, 285-309쪽.

29) <<적도의 꽃>> 최인호 소설을 영화화 아파트 세대 새 모럴과 숙명적 사랑 그려, 『경향신문』, 1983.10.10., 12면.

격적이고 후견적<sup>30)</sup>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당대 영화평은 젠더 위계 구도에 입각한 폭력과 범죄라는 문제를 도외시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애마나 선영이나 고층아파트에서 부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혹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1978년 기준 전 가구의 70%가 계에 가입했고 이를 주도하는 집단이 여성이었으며, 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번진 토지, 증권, 부동산 투기 붐이 “이상 비대해진 주부들의 경제권의 결과”로 매도되는 상황<sup>31)</sup>에서, 극 중 여성 인물들은 사랑과 섹스만을 갈구하며 물질주의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경제력이 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애마뿐만 아니라,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선영 역시 호화로운 삶을 영위함에도 돈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극 중 선영은 사랑을 원할 뿐 돈은 원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곧 두 영화 속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은 그 계급적 상징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1980년대 여성의 자유와 사랑을 내세운 영화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염두에 둘 점은 가정의 영역 바깥에서 성적 자유를 체험하는 이들은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여성 대상 범죄와 연결되는 동시에 중국에 젠더 폭력의 문제성은 후경화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의 배경인 물질 토대는 괄호치고 이들이 향유하는 80년대 여성의 자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영화 속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30) 최영철, 『『적도의 꽃』-극적인 동질감을 잘 나타내준 인물구성』, 『영화』, 1983.11.12., 82-83쪽.

31) 이도성, 〈한국사회 그 비리와 폐습 <25> 계 바람〉, 『동아일보』, 1980.11.14., 3면.

### 3. 여성 간 연대와 가부장제로부터의 이탈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는 이민용 감독의 데뷔작으로 당해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고른 호응을 받았다.<sup>32)</sup> 영화는 당시 ‘페미니즘 코미디’<sup>33)</sup> 영화로 명명되었으며, 특히 폭력을 행하는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여성들의 연대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 해방이라는 문제를 전경화하였고 이후 한국영화 100선을 선정할 때 재차 소환된 바 있다. 감독은 연출 의도와 관련해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집단폭력’을 여자들이 구사하게 되는 ‘거꾸로 된 상황’을 연출, 씩씩한 웃음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겠다.”<sup>34)</sup> 고 언급한 바 있다. 곧 남편에게 멸시와 폭력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차별받았던 여성 인물들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구도를 역전시킴으로써 극적 쾌감을 만들어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같은 날의 오후>는 여성영화 혹은 한국영화 속 페미니즘이란 화두를 다룰 때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감이 있다.

<개 같은 날의 오후>의 실제 촬영지는 동작구 상도4동 삼진아파트로, 영화 속 거의 모든 장면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영화는 뜨거운 여름 인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포항댁(임희숙)이 주문을 받고 게으른 남편 대신에 변압기가 고장 나 모두 더위에 허덕이는 장미아파트 안으로 배달을 가며 시작된다. 그리고 각 세대 안과 아파트 바깥 평상에 앉아 있는 인

32) 영화는 서울에서만 274,568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당시 이용관은 영화에 대해 “질박한 리얼리티가 넘실거리는”, “민중적 삶을 담보해낸 영상 마당놀이와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역설적으로 담론화”하는 작품이라 평가한다. 이용관, <「개 같은 날의 오후」 화면 가득 넘실대는 질박한 리얼리티>, 『한겨레』, 1995.09.08., 15면.

33) 박원재, <<개 같은 날의 오후> 보통여자들 남성중심 사회 ‘반기’>, 『동아일보』, 1995.08.24., 35면.

34) 검색어 “개 같은 날의 오후”, 한국영상자료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789#>. (검색일: 2025.03.11.)

물들을 교차해서 보여준다. 그중에는 성노동자 윤희(정선경)와 명화(이명희), 의처증에 시달리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정희(하유미), 정치에 욕심이 있는 부녀회장(김보연),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유미(김알음),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영희 엄마(송옥숙)와 그와 만남 중인 기순(이진선), 영희 엄마와 친한 석이 엄마(황미선), 과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헤어진 경숙(손숙)이 섞여 있다. 이들은 짜증나는 무더위 속에서 아파트 바깥으로 도망 나온 아내를 끝까지 폭행하는 정희의 남편을 만류하다 그를 집단 구타하게 되고, 폭력을 방조하는 남자들과 충돌하기도 한다. 정희의 남편은 사망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피신한 이들은 자신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피해 농성을 시작한다.

영화는 1990년대 초반 확산된 페미니즘 사상과 맞닿아 있다. 당시 낸시 초도로의 『페미니즘과 정신분석이론』을 비롯해 조세핀 도노반의 『페미니즘 이론』 등 페미니즘 관련 저서가 국내에 소개되었고<sup>35)</sup>, 문화계에서 페미니즘이 화두로 떠올랐다<sup>36)</sup>. 한 언론은 달라진 여성을 주고객층으로 겨냥한 상품의 성공을 근거로 ‘페미니즘’=‘잘 나가는 상품’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sup>37)</sup> 사회 비판 코미디를 표방한 군상극 〈개같은 날의 오후〉에서 농성하는 여자들은 가정 내 크고 작은 폭력을 비롯해

35) <낸시 초도로 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이론」, 『동아일보』, 1990.02.06., 17면; 조선희, <한국적 여성학 교재 첫발〉, 『한겨레』, 1991.08.22., 10면; <페미니즘 이론〉, 『동아일보』, 1993.09.01., 15면; 최정훈, <기획출판시대 〈7〉 여성사 간 「페미니즘」 총서〉, 『경향신문』, 1994.09.28., 13면.

36)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에게 법적,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가정 내에서의 남성 지배를 강하게 비판했고, 남녀평등이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역설했다. 조희원,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한국과 국제사회』 통권24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215-234쪽.

37) 김미경, <달라진 여성 달라지는 사회 2 직장여성 의식주생활 ‘페미니즘 산업’ 부른다〉, 『한겨레』, 1993.05.31., 7면.

남성 중심 사회의 피해자로서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집단 응징에 동참하게 된다. 영화는 젠더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이를 뒤집어버리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발생하는 극적 쾌감에 초점을 맞춘다. 부녀회장, 성노동자, 식당 주인 등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우리 여자들’이라는 구호 아래 단합하고, 옥상에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 주민, 농성자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 기자(문수진), 여성 단체 등이 아파트 부근으로 몰려들면서 연대의 범위는 확장된다. 영화는 가정에서의 여성 지위 확보 및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sup>38)</sup>의 연장선 속에 있으며, 실제 성비에 맞춰 국회의원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대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성노동자 명화가 채용 시 겪었던 여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도 삽입된다. 중반 이후 농성자들 사이에서 트랜스젠더 유미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정희가 유미를 끌어안으면서 생물학적 기준을 근거로 한 성별 이분법을 넘어 젠더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기도 한다.

〈개 같은 날의 오후〉에서 자유라는 모델은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리적인 여성 공동체의 반대편에는 다양한 형태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이 등장한다. 식당을 경영하는 포항댁의 남편은 음식 제조와 배달을 모두 아내에게 일임하고, 의처증에 시달리며 도박과 폭력을 일삼는 정희의 남편이 여자들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은 극적 응징의 순간으로서 이후 농성자들이 경찰/공권력을 조롱할 때와 함께 극적 쾌감을 제공한다. 영희 아빠는 아파트 주민인 독신 여성 기수와 불륜 중이며, 이 관계는 집 수리를 하던 그가 기수를 추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설정된다.

38) 권영숙, 〈급진 페미니즘 연극 2편 무대에〉, 『한겨레』, 1993.04.21., 9면; 김희경, 〈페미니즘 영화 ‘위상 찾기’ 활발〉, 『동아일보』, 1993.07.02., 16면; 〈소설, 연극, 영화 ‘여성 홀로서기’ 바람 페미니즘 예술 전성시대〉, 『동아일보』, 1993.04.19., 9면.

이외에도 그는 동네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방관하고 아내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는다. 아파트 주민 외에도 주목해보아야 할 캐릭터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한 기동대장(정보석)이다. 이전에 시위 과잉 진압으로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그는 여성들을 연행하기 위해 이들의 식욕을 자극하거나, 트랜스젠더 유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다거나, 전문가를 투입하는 전략을 이어가나 결국 실패한다. 자신의 아내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이어가던 그는 예기치 못한 저항과 맞닥뜨린다.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이 있는 ‘지난번 사건’은 90년대에도 이어지던 치열한 시위의 현장을 상기시킨다. 영화는 극 중 여성들의 농성 행위를 근현대사 속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 안에 배치한다. 결말부에 농성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등장하는 여성들은 “경찰 폭력 물러가라.”를 구호로 내걸고, 종국에 영화는 가정 안팎에서 벌어진 남성들의 폭력과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국가 폭력을 연결 짓는다. 과거의 시위 현장에서 전경화됐던 민족과 계급이라는 문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젠더라는 화두로 치환된다.

〈개 같은 날의 오후〉에서 아파트는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여성 노동 등 가부장제의 폐해를 압축해둔 공간이자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해방의 공간이 된다.<sup>39)</sup> 또한 1980년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당대 ‘서민아파트’를 표방하고 있는 극 중 공간은 당대 아파트가 갖는 계급화된 거주 공간이라는 특성과 유리되어 있다. 옥상 위 농성자들은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기 어려운 집단이나 차이를 넘어 남성, 나아가 국가, 그리고 사회와 투쟁한다. 아파트라는 공간에 몰려 있는 여성들은 폭

39) 모지현은 아파트 옥상이 극 중 주민들이 가부장제에 대한 차별을 겪으면서 ‘바깥의 경험’을 하게 되는 ‘바깥의 공간’이자 ‘헤테로토피아공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모지현, 앞의 책, 150쪽.

력의 피해자가 되나 그 구도를 뒤엎고 스스로의 연대 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의 변화를 만든다(그림 3).



그림 3. 여성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여자들(《개 같은 날의 오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 제정 전 제작된 영화는 극 초반 진행과 별다른 상관 없이 긴 분량의 눈요기성 베드신을 삽입하거나 여성 대상 가정 폭력을 범죄로 인지하고 그 문제성을 각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직접적으로 재현한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극적 쾌감과 성별 대립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 간 화해와 연대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한계도 노출한다. 여성 간 차이를 무화하고 그 연대를 낭만화하는 과정에서 극 초반의 문제의식이 휘발된다는 것과 관련해, 제작진이 강조하는 연대의 판타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요소도 있다. 공권력과 가부장의 문제성을 비판하기 위해 주조된 인물인 기동대장에 대한 문제의식도 중반 이후 그가 희화화되기 시작하면서 축소된다. 영화는 남성 중심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지만, 기동대장인 경찰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남성 가부장에 대한 동정 어린 시선을 보인다.

그럼에도 여성 대상 폭력을 사랑이나 애증으로 포장하는 대신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 여성의 자유라는 영역을 성적 해방을 넘어 가부장제

로부터의 이탈과 저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1990년대 페미니즘 영화로서 <개 같은 날의 오후>가 보여주는 성취다. 욕상으로 이동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아파트 앞으로 와서 시위를 벌이는 결말부는 연대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아내 구타’라는 문제를 여성 입장에서 다룬 영화가 ‘중년 주부’ 관객의 호응을 얻은 것<sup>40)</sup>은 가부장적 사회를 향한 “속 시원한” 해방과 자유의 감각을 대리 충족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 4. 자녀 교육공동체와 계층 이동의 가능성

1990년을 기점으로 전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30%를 넘어 서고, 2000년에 이르면 46.5% 그리고 2005년이 되면 55%에 육박하게 된다.<sup>41)</sup> 이처럼 거주 형태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가 서사의 동력의 중심이 되는 일련의 텍스트가 대중과 만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강남 거주와 교육 문제를 연동하여 ‘엄마’들의 교육열과 강남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불륜, 자살, 살인 등 일련의 사건을 다룬 TV 드라마들이 화제를 모으기 시작한다. 이 같은 드라마의 시초격인 <강남엄마 따라잡기>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육아와 재테크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다룬 <新현모양처>(2007), 가정주부의 성

40) 강민석,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중년 주부들 몰린다>, 『경향신문』, 1995.09.14., 23면.

41) 「주택-지표로 본 서울변천 2010」, 『데이터로 본 서울』,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s://data.si.re.kr/data/%EC%A7%80%ED%91%9C%EB%A1%9C-%EB%B3%B8-%EC%84%9C%EC%9A%B8-%EB%B3%80%EC%B2%9C-2010/349>. (검색일: 2025. 03.14)

장 서사 속에서 불륜과 관련한 아파트 ‘괴담’이 등장하는 <아내의 자격>(2012), 역시 교육 전쟁에 뛰어든 가정주부들의 일탈과 범죄, 유대를 다루는 <그린마더스클럽>(202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열과 여성들의 암투, 범죄 등을 다룬 드라마의 중심에는 흥행 면에서 가장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SKY 캐슬>(2018-19)이 있다. 이들 드라마는 상당수가 자식 교육을 위해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이주한 어머니가 강남이라는 이상한 세계에서 기존 거주자들과 만나며 벌어지는 갈등, 범죄, 화해를 소재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불법 성매매(<강남 엄마 따라잡기>), 간통(<강남엄마 따라잡기>, <新현모양처>, <아내의 자격>), 불법 약물 투여(<그린마더스클럽>), 살인(<SKY 캐슬>) 등을 다룬다.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자식 교육을 위해 학군지로 이주한 엄마가 맞닥뜨리는 이상한 세계’를 다룬 드라마의 시초로 방영 이후에도 유사한 소재와 배경을 다룬 작품이 등장할 때마다 소환된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군부정권하 도십지 인구 분산을 명목으로 한 명문 학교의 강남 이동은 ‘강남 8학군’을 탄생시켰고, 한국형 근대화 전략의 하나인 아파트 대량 공급은 강북으로부터 이전한 명문 학교와 근처 아파트에 입주한 중산층을 결합하여 8학군을 특권화하게 됐다.<sup>42)</sup> 교육과 부동산 욕망이 뒤얽힌 강남 지역에 특권화된 장소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때 사교육은 ‘8학군’의 교육적 특권이 됐으며, 2000년대 이후 강남 지역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가 됐다.<sup>43)</sup> 이 같은 사회상과 조응하여,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남편 사망 후 강북 지역에서 홀로 성적이 뛰어난 아들을 키우던 민주(하희라)가 아이를 데려가려는 시모에 대항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시작된

42) 오제연, 「1976년 경기고등학교 이전과 강남 ‘8학군’의 탄생」, 『역사비평』 제113호, 역사비평사, 2015, 201-205쪽, 216쪽.

43) 위의 글, 225쪽.

다. 그곳에서 민주는 아이들의 성적 덕분에 주변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옛 친구 수미(임성민)와 조우하고, 아파트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하숙생 상원(유준상)을 집에 들인다. 이후 민주는 그 하숙생이 아들의 담임 교사임을 알고 경악하나, 대립하던 둘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학원가들이 밀집된 대치동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그림 4)는 아이들의 성적이 최우선인 중산층 여성들의 분투기에 집중한다. 극 중 은행 PB센터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수미는 아이들의 성적만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건물주인 남편을 둔 미경(정선경)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민주 역시 공부 잘하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강남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무리하게 이사를 감행한다. 이후 과학고에 다니면서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수미의 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고, 이 일을 계기로 엄마들과 상원이 각각 좋은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야기는 화해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드라마에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작품 속 반복되는 모티브인 불륜 외에 불법 성매매가 등장한다. 민주는 상원을 하숙생으로 받아들이며 부족한 월세를 내지만, 아이의 학원비가 부족하기에 대리운전, 식당 아르바이트에 이어 노래방 도우미까지 지원하게 된다. 노래방 주인은 일자리를 찾는 민주에게 아이의 학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엄마들이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곳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던 민주는 집중 단속에 걸려 연행된다. 엄마들의 범법행위와 관련해 작품 속에는 담임 교사에게 전달할 과도한 '목욕값'을 걷는 상황이 묘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 풍자 코미디 형식을 취하는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교육을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여성들의 일탈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자식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된다.



그림 4. 자식의 전입을 위해 뛰어가는 민주(〈강남 엄마 따라잡기〉 중)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사교육의 메카 안에서 학부모들의 교육공동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이기도 하다. 여성 인물들은 철저하게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 함께 움직이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해체하거나 재구성된다. 극 중 수미는 성적이 비슷한 학부모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축해 입시 및 학원 정보를 공유하고, 배척 대상이었던 민주는 아이가 성적으로 성과를 입증하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는다. 주요 인물인 민주, 수미, 미경은 강남에서 다시 만나 갈등하고 화해하며 중국에 연대감까지 형성한다.

드라마는 1970년대 이후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아파트 소유와 투자/투기를 통한 계층 상승전략이 확산된 상황<sup>44)</sup>과 맞물려 있다. 민주는 계층 이동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궁극적인 종착지는 학군지 정착과 자식의 대학 입시 성공으로 요약된다는 점에서 그가 꿈꾸는 자유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과 경제 질서의 자장 안에 있다. 제작진은 IMF 이후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욕망과 교육을 중심으로 재배치된 서울의 지리학을 짚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시청률을 고려한 타협과 수위 조절 과정에서 이

44) 지주형,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324-325쪽.

같은 문제성은 희석된다.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교육에 투영된 부동산 욕망과 학군지를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서울의 지리가 코미디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대중이 이를 거부감 없이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또한 '자식 공부에 목숨 거는 엄마들'이 법의 경계를 횡단하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시작된 온라인상 '된장녀' 담론과 맞물려 특정 집단에 대한 여성혐오와 맞물려 재생산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45)</sup>

## 5. 아파트 투자/투기 공동체와 신자유주의 도덕률의 체화

2010년대 이후 아파트 표상은 재난 담론과 맞물려 다각화된다.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아포칼립스물(웹툰 <스위트홈>(2017-2020)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 1(2020), 웹툰 <유쾌한 왕따>(2014-2016) 2부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2023))은 종말과 계급화를 연결지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극의 주요 배경으로 두고, 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이진투구를 전경화한다. 역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해피니스>(2019) 역시 감염병이 일상화된 근미래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구분된 신축 아파트에 감염병 환자가 속출하며 벌어지는 상황을 다룬다. 극 중 두 주인공은 신축 아파트에 임대분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장 결혼을 선택한다. 이 같은 텍스트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상

---

45)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뉴레디컬리뷰』 제57호, 2013.9, 44-52쪽 참조.

상하며 아파트를 배경으로 계급화된 현실과 집단이기주의의 문제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주지와 계급이 고착되고, ‘흙수저’ 담론이 유포됨에 따라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해 관계의 주체”<sup>46)</sup>가 된 여성들이 범죄를 주도하고 공모하면서 서스펜스가 만들어지는 스릴러가 등장했다. 이들 텍스트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이 결과적으로 돈에 천착하게 만들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1980년대 복부인에 대해 “좀 더 잘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sup>47)</sup>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것과 관련해,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더 불분명해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여성의 욕망을 선불리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출현시켰다.

전작 <마스크걸>에서 외모지상주의를 통해 여성혐오를 고찰하며 모성이라는 문제에 묘사했던 매미·희새는 <위대한 방옥숙>에서 한강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인근 아파트 재개발을 무산시키려 하는 ‘노블골드캐슬’ 부녀회의 이야기를 담는다. 애초 아파트 이름까지 바꾼 부녀회의 목적은 재산권 보호였지만 조직폭력배 출신 재개발 조합장 및 지자체장 등 권력형 비리와 얽히게 되고,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부녀회 동료를 돕기 위해 살인 및 유기에 가담하면서 문제는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작품 속 방옥숙은 한강변 아파트로 이주하고 나서 갑자기 자아를 찾겠다는 남편이 가출한 후 집값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방옥숙의 딸 재희는 그런 엄마를 혐오하며, 엄마가 아빠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이외에 힙합에 빠진 아들에게 온전히 집을 물려주기 위해 암 선고 후 부녀회 활동에 재합류하는 전 부녀회장, 가정폭력에 시달리지만

46) 권김현영, 앞의 글.

47) <생각은 개방에 기울고 행동은 가정서 맴돈다>, 『경향신문』, 1983.10.06., 19면.

SNS를 통해 집안 인테리어를 과시하는 예리, 드랙(Drag) 취향의 남편과 합의하에 불륜을 하는 도희, 역시 과거 가정 폭력을 겪었던 부녀회 최연장자인 명자 등이 재개발 주도자들과 얽히는 과정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남편이 부재하거나, 실직 상태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건재하더라도 폭력을 일삼는 상황에서 이들은 가부장에게 의지하는 대신 서로를 지지기반으로 삼으며 유대감을 형성한다.

〈위대한 방옥숙〉은 2000년대 이후 매체가 생산한 “돈 버는 비경제활동 인구”로서 전업주부 담론과 맞닿아 있다.<sup>48)</sup> 이들은 투기와 재테크 사이에서 부동산 자산을 증식시켜 가족 경제에 기여한다. 극 중 한강변 아파트 부녀회 인물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집값, 곧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중산층의 삶이자 거주지의 안정성이다. 3회에 등장하는 대사처럼 “방옥숙 여사는 겨우 이뤄낸 중산층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목숨을 걸고 재개발 업자들과 사투를 벌인다. 방옥숙에게 아파트는 자존심이자 존재 기반이며, 아파트 이사 후 아들과 딸에게 사는 곳을 가려서 친구들을 사귀라고 강요한다. 암 선고를 받은 부녀회장은 힙합 가수의 꿈을 꾸는 아들에게 가치 있는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며, 공부 잘하는 딸을 둔 여자나 SNS에 살림 비법을 과시하는 여자 모두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친다. 이 중 방옥숙의 경우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감행했으며, 아파트 중도금 문제 때문에 감옥까지 간다 오며 ‘사회이동’을 실현한 인물이다. 그는 부동산 개발에 입각한 ‘한국식’ 자본주의의 주인공이자 행위자로서 이동을 꿈꾸었고 계급 상승을 이루었다.<sup>49)</sup> 극 중 부녀회원들은

48)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0, 147-151쪽.

49) 하다스 바이스는 “중산층이 될 가능성은 사회이동(상승과 하락 모두)이 우리 자신의 몫임을 암시한다.”며 중산층의 상승전략을 비롯해 중산층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하다스 바이스, 『중산층은 없다-사회이동이 우리를 어떻게 호도하는가』,

모두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경제적인 자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범죄도 서슴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웹툰이 투자/투기의 경계를 걷는 부녀회원들의 투쟁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와 동시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 부녀회원들은 의도치 않게 재개발에 반기를 드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가시화한다.<sup>50)</sup> 또한 제작진은 부녀회가 재개발 반대 과정에서 만나는 베트남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에피소드를 삽입해 한국 근현대사 속 남성성이라는 문제를 짚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단체 행동은 가족, 집단이기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복부인’ 형상부터 이어져 온 투기 집단으로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답습한다. 그럼에도 염두에 둘 점은 창작진이 이들의 ‘현실적’ 욕망에 대해 감정 이입할 여지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특히 극 중 가장 문제적인 부녀회원들의 범죄, 곧 살인과 시체 유기는 결혼생활 내내 가정 폭력에 시달렸던 부녀회 회원의 남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던 예리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가격하고, 이후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명자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질식사시킨다. 이어 방옥숙의 주도하에 부녀회원들은 시체를 유기한다.

웹툰은 가정 내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고 지금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여성 간 연대를 부각한다. 살인과 시체 유기라는 범죄는 징벌받아야 할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투자/투기 욕망은 익숙한 동시에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친시장주의, 능력지상주

---

문혜림·고민지 역, 산지니, 2021, 44-49쪽.

50) 작품 속 ‘이영박’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재개발 조합장을 지원하는 인물로 ‘엘시티 게이 트’에 등장했던 실제 인물 이영봉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는 건설업계 CEO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의, 생존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 도덕률은 작품 속 부녀회의 가치와 맞물리며 부동산 상승, 곧 돈에 대한 욕망은 변화된 세태 안에서 당연시되는 것이다. 제작진은 마지막회에 이르러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방옥숙의 딸에 이어, 과거 방옥숙이 남편 앞에서 지금의 딸과 똑같은 발언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를 혐오했던 딸 역시 그녀와 닮아갈 것이라는, 투자/투기의 세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주도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위대한 방옥숙〉이 가족에 대한 엇나간 사랑이나 부녀회 회원 간 연대를 통해 집단에 대한 애착을 남겨 두었다면,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의 경우 더 철저하게 개인화된 세계와 생존주의를 드러낸다. 이는 등장인물의 지위, 성격과도 관련되지만, 시기적으로 뒤에 발표된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은 부동산 계급화가 더욱 고착된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암울해진 세계 인식을 보여준다. 웹툰 속에서 역세권에 ‘살기 편한’ ‘기유센트럴아파트’를 소유한 친구 부예지의 집에 얹혀사는 방지애는 사고로 그가 사망하자 아파트를 본인 소유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방지애는 본인의 죽음을 위장하고 부예지가 되어 집을 차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 인우와 공모해 전세 사기에 동참해 ‘빌라퀸’으로 거듭나고, 좋은 집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던 회사 동료 민철까지 끌어들이고, 그러나 죽음을 위장하는 과정에서 과거 친구이자 자신이 주도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인 다운과 만나게 되며 계획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간다. 좋은 집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됐던 방지애의 계획은 더 넓은 집, 더 큰 돈에 대한 욕망으로 진화하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은 범죄의 출발점을 독자가 공감할 소

시민적 욕망, “마트가 있어 장 보기 편하고,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고, 역세권이 있어 지하철 타기 편한” 집에 살고픈 동기로 설정한다. 그리고 방지에의 변화에 지금 독자가 목도하고 있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계기를 두고, 그의 극악함과 함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주민들의 속물성을 함께 형상화한다. 범죄 행위의 추적자이자 전세 사기의 피해자 고다은 또한 본인이 파악한 진실을 빌미로 방지에에게 아파트 명의 전환을 요구한다. 여기서 웹툰이 여성의 소비 습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답습하고 이를 이후 벌어질 범죄와 연결짓는 지점은 기존의 여성혐오적 시선을 답습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지점이다.<sup>51)</sup> 그럼에도 아파트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물로 변모하는 여성을 통해 스위트홈 바깥을 보여주는 지점은 차별화된 여성 캐릭터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방지에가 더 큰 부(富)를 욕망하면서 범죄 수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합심하게 되는 직장 동료 민철, 전 남자친구 인우와의 관계는 온전히 경제적 목적으로 형성된다. 그녀가 두 남성과 맺는 관계에는 사랑, 교감, 섹스 등 익숙한 대중서사의 요소들이 삭제되어 있다. 웹툰은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와 직결되어 있던 ‘가족 로망스’의 열망을 삭제하고<sup>52)</sup>, 개별자로서 범죄를 이어가는 개인을 형상화한다.

살펴본 것처럼 2010년대 후반 이후 발표된 웹툰 속 여성 인물들은 중산

51)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과 여성혐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지니, 앞의 글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52) 박해천은 아파트, 그리고 ‘가족 로망스’와 관련해 1940년대생들이 정치적 역할을 그만두고 가정 내 아버지의 배역을 연기하며 주택청약금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4.19 세대의 가족들이 주부의 활약에 기대어 아파트의 새로운 수학 공식을 발견하고 중산층으로 안착하고자 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박해천, 『아파트 게임-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2023, 22-29쪽.

층 편입과 유지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경우에 따라 투기는 물론 범법행위까지 저지른다. 이들은 중산층으로서의 욕망은 드러낼지언정 최소한의 거리 감각은 견지하고 있었던 1970-80년대 소설 속 여성 캐릭터에서 한 발 나아가, 자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 불사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괴물로 진화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성적 자유를 다룬 영화 속 여성들이 아파트에서 섹스와 사랑의 자유를 꿈꾸는 것과 달리, 남성과의 성애는 배제하고 노골적으로 자본주의의 욕망에 탐닉한다. 또한 1990년대 페미니즘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이 구체제에 대한 정치적 반기를 들고 가부장제로부터의 이탈을 도모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들은 철저히 자본주의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움직인다. 이들은 역시 계층 이동의 문제를 다루었던 2000년대 '학근지 서사' 속 여성 인물보다 돈에 대해 훨씬 노골적이고, 범죄 수위는 훨씬 극악하며 전통적인 윤리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온전한 신자유주의 주체로 거듭난다.

염두에 둘 점은 전통적 가부장의 권위는 붕괴되고 경우에 따라 성애적 관계와 결혼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둘러싼 여성 범죄는 새로운 시대성에 대한 방증처럼 자리한다는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자유의 정의와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 각종 범죄의 피해자 혹은 대상으로 자리했던 여성 인물들이 경제적인 독립과 안정성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가부장제를 부정하고 범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다만 법질서 바깥으로 이탈하려는 그 움직임은 온전히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안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두 웹툰은 여성들이 부동산에 천착하게 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나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족주의 안에 머물러 있는 복부인 혹은 사치스러운 미혼여성이라는 기존의 여성 혐오를 답습한다는 문제도 노출한다.<sup>53)</sup>

## 6. 나가며

본고는 1980년대 초반 영화부터 2020년대 초반 웹툰까지를 살펴보며 한국 주거공간의 상징이 된 아파트를 배경으로 여성 대상 혹은 주도 범죄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선택한 인물들이 갈구하는 자유의 형태를 성적 자유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변화지점과 관련하여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자유, 해방의 공간, 실질적인 경제 가치이자 상징자본으로 진화한 아파트라는 표상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그리고 여성 혐오라는 측면에서 텍스트가 발표된 시기와 조응하여 이 작품들이 어떻게 가부장제, 자본주의 질서 등 주류 담론에 편승하는 동시에 이를 해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염두에 둘 점은 아파트 안팎에서 범죄에 연루된 여성 캐릭터들이 범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마부인>과 <적도의 꽃>에서 애마와 선영은 간통죄 폐지 이전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시에 스토킹과 성폭력의 피해자로 자리한다. <개 같은 날의 오후>의 농성자들은 남편을 비롯한 주변 남성들로부터 억눌려있던 울분을 폭력 남편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해소한다. <강남엄마 따라잡기>의 민주는 계층 이동의 욕망을 안고 강남으로 가서 비윤리적 교육현장의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지원한다. 이에 더해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웹툰에서 투기와 투자의 경계를 걷는 여성들은

---

53) 최시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부동산 투자, 여성의 경제행위가 '대범하고 진취적'인 동시에 남성성을 경유해서 설명되거나, 가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것'으로 재현되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같은 메커니즘 안에서 여성의 온전한 계급적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최시현, 앞의 책, 256-257쪽).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기 등을 저지르는데, 결국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모호한 위치에서 있다. 여기서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과장되어있을지언정 당대의 사회적 통념 및 모럴과 맞닿아 있다.

아파트 안팎으로 ‘여성의’ 범죄를 전경화한 이들 텍스트는 시대별로 대중이 갈구하는 자유라는 모럴의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의 텍스트에서 여성 캐릭터는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고 어떤 관계에 대한 로망스도 형성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본고에서 논의한 작품들은 경우에 따라 대상화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서 여성 혐오적 시선을 답습하거나, 혹은 너무 손쉽게 익숙한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한계를 노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파트라는 동시대 자본주의의 표상을 배경으로 진화하는 여성의 욕망을 진단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투자와 투기, 그리고 범죄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사이’에 있는 여성 캐릭터의 불안함은 곧 시대의 불안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자유와 해방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타협이 낳은 여성 범죄의 형상화 방식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현희 극본·홍창욱 연출, <강남엄마 따라잡기>(2007)  
매미 글·희세 그림, <위대한 방옥숙>(2019-2020)  
유기 글/그림, <부동산이 없는 자에게 치명적인>(2024)  
이경식 외 각본·이민용 연출, <개 같은 날의 오후>(1995)  
이문용 각본·정인엽 연출, <애마부인>(1982)  
최인호 각본·배창호 연출, <적도의 꽃>(1983)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영화』,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main>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s://data.si.re.kr/>

### 2. 논문과 단행본

- 김주희, 「'투기부인'이라는 허수아비 정치: 두 편의 사적 다큐멘터리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12권 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9, 111-148쪽.  
모지현, 「헤테로토피아 공간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와 <꿈의 제인>을 중심으로」, 『현대문예비평연구』 제83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4, 137-159쪽.  
박유희, 「'검열'이라는 포르노그래피-〈춘몽〉에서 〈애마부인〉까지 '외설' 검열과 재현의 역학」,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99-145쪽.  
박혜경,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0, 127-158쪽.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2011,  
\_\_\_\_\_, 『아파트 게임-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휴머니스트 2023.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제5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231-256쪽.  
\_\_\_\_\_,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

- 문학』 제164호, 국어국문학회, 2013, 489-518쪽.
- 오제연, 「1976년 경기고등학교 이전과 강남 '8학군'의 탄생」, 『역사비평』 제113호, 역사비평사, 2015, 2015, 198-233쪽.
- 유인혁, 「아파트 디스토피아를 다시 생각하기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의 해방적 전유와 거주하기의 상상력」, 『인문연구』 제10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1-43쪽.
-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뉴래디컬리뷰』 제57호, 2013.9, 33-56쪽.
- 이윤종, 「한국영화의 은자적 코스모폴리타니즘: 배창호의 〈적도의 꽃〉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17권 2호, 영화연구소, 2024, 101-128쪽.
- \_\_\_\_\_, 『에로영화의 은밀한 매력: 1980년대 한국 대중영화의 진보적 양면성』, 두두, 2024.
- 이제민, 『외환 위기와 그 후의 한국경제』, 한울아카데미, 2017.
- 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321-359쪽.
- 정미선,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박완서 단편소설을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제1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101-146쪽.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 \_\_\_\_\_,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2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307-330쪽.
-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2021.
- 한영현, 「1980년대 스크린 에로티시즘과 신체의 카니발」, 『현대영화연구』 제45호, 현대영화연구소, 2022, 161-182쪽.
-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박완서의 1970년대 저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0호, 상허학회, 2017, 85-144쪽.
- 황지선, 「불안 사회의 욕망과 주거 실현의 가능성-2010년대 이후 부동산 소설을 중심으로

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235-264쪽.  
하다스 바이스, 『중산층은 없다-사회이동이 우리를 어떻게 호도하는가』, 문혜림·고민  
지 역, 산지니, 2021.

### 3. 기타자료

- 강민석,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중년 주부들 몰린다>, 『경향신문』, 1995.09.14.,  
23면.
- 강상헌, <아파트 밀집주거 시대 (9) 독신자들의 「천국」>, 『동아일보』, 1982.12.21.,  
3면.
- 권김현영, 『권김현영의 여자들의 사회 웹툰 <위대한 방옥숙>, 아파트 부녀회의 세계』,  
채널 예스, 2020.11.18., 9면.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43368>. (검색일: 2025.03.15.)
- 권영숙, <급진 페미니즘 연극 2편 무대에>, 『한겨레』, 1993.04.21.
- 김미경, <달라진 여성 달라지는 사회 2 직장여성 의식주생활 '페미니즘 산업' 부른다>,  
『한겨레』, 1993.05.31., 7면.
- 김효정, <<애마부인>은 그저 말타는 야한 영화? 전두환이 한 일들: [야한 영화의 정치  
학 기 성애 영화의 신호탄, 그 안에 담긴 1980년대]>, 『오마이뉴스』, 2017.05.  
18.,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  
CNTN\\_CD=A0002325543](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25543). (검색일: 2025.02.15.)
- 김희경, <페미니즘 영화 '위상 찾기' 활발>, 『동아일보』, 1993.07.02., 16면
- 박원재, <<개 같은 날의 오후> 보통여자들 남성중심 사회 '반기'>, 『동아일보』, 1995.  
08.24., 35면.
- 신은실, 『[한국영화결작선] <적도의 꽃>』, 한국영상자료원, 2013.08.23., [https://  
www.kmdb.or.kr/story/10/2034](https://www.kmdb.or.kr/story/10/2034). (검색일:2025.03.02.)
- 이도성, <한국사회 그 비리와 폐습 (25) 계 바람>, 『동아일보』, 1980.11.14., 3면.
- 이시형, <중년여성-아파트 단절의 벽을 헐어라>, 『조선일보』, 1983.04.03., 6면.
- 이연재, <고층아파트 병약한 동심 만든다>, 『경향신문』, 1983.03.11., 6면.
- 이용관, <「개 같은 날의 오후」 화면 가득 넘실대는 질박한 리얼리티>, 『한겨레』,  
1995.09.08., 15면.

- 전지니, 「대중문화 속 부동산과 젠더 정치학」, 『문장웹진』, 2024.10.01., [https://munjang.or.kr/board.es?mid=a20102000000&bid=0004&act=view&list\\_no=102720](https://munjang.or.kr/board.es?mid=a20102000000&bid=0004&act=view&list_no=102720). (검색일: 2025.03.15.)
- 정(貞), 〈기혼녀 소재 영화 제작 붐〉, 『매일경제』, 1982.03.01., 9면.
- 정수진, 〈로제 '아파트' 말고 우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ize』, 2024.10.29.,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59>. (검색일: 2025.03.16.)
- 조선희, 〈한국적 여성학 교재 첫발〉, 『한겨레』, 1991.08.22., 10면.
- 조혜영, 「근대적 욕망의 얼굴」, KMDB, 2024.02.02., <https://www.kmdb.or.kr/story/717/7696>. (검색일: 2025.02.14.)
- 조희원,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종속'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한국과 국제사회』 통권24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215-234쪽.
- 주, 〈TV·영화 여성 해방 기류〉, 『동아일보』, 1982.01.16., 11면.
- 최영철, 「『적도의 꽃』-劇의인 동질감을 잘 나타내준 人物構成」, 『영화』, 1983.11.12.
- 최정훈, 〈기획출판시대 〈7〉 여성사간 「페미니즘 총서」〉, 『경향신문』, 1994.09.28., 13면.
- 최환, 〈「보호받는 여성」사 벗어나야〉, 『조선일보』, 1983.01.11., 6면.
- 〈복부인과 계 파탄〉, 『경향신문』, 1979.10.26., 2면.
- 〈〈적도의 꽃〉 최인호 소설을 영화화 아파트 세대 새 모델과 숙명적 사랑 그려〉, 『경향신문』, 1983.10.10., 12면.
- 〈생각은 개방에 기울고 행동은 가정서 맴돈다〉, 『경향신문』, 1983.10.06., 19면.

## Abstract

### A Cultural History of the “Freedom” Discourse through Apartments and Female Crime (1982–2024)

Jun, Jee-Nee(Hankyu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representation of apartments in popular culture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women’s crime. This term encompasses both crimes committed against women and those committed by women. In doing so, it examines the cultural sociology of female crime within apartment setting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spanning from the 1980s to the present. The analysis focuses how the apartment, and the moral ideal of “freedom,” are connected to crimes involving women—either as victims or perpetrators—and identify how such crimes reflect the desires and tensions of their respective eras.

The analysis focuses *Madame Aema* (1982) and *Flower of the Equator* (1983), which explore sexual liberation through apartment living and taboo relationships; *A Dog Day Afternoon* (1995), which dramatizes women’s resistance to gender-based violence; *Catching Up with Gangnam Moms* (2007), which addresses class mobility and maternal ambitions for educational success; and *The Great Bang Ok-sook* (2019–2020) and *Lethal to Those Without Real Estate* (2024), which focus on female crime in relation to real estate.

In analyzing these texts, this discusses the forms of freedom that apartment dwellers pursue—sexual freedom, freedom from violence, and economic freedom—and examine how women’s crimes are portrayed in the process. In line with the time periods in which these works were produced, this paper will also consider how they reflect or challenge dominant discourses of patriarchy, misogyny, and the capitalist order. These narratives will be linked to the broader anxieties of their times, as embodied by female characters who are caught between investment and

speculation, and between the roles of criminal and victim, all within the symbolic and material framework of the modern apartment.

(Keywords: Apartment, Freedom, Female Criminality, Class Mobility, Neoliberalism, *Madame Aema*, *Flower of the Equator*, *A Dog Day Afternoon*, *Catch up with the Gangnam Mom*, *The Great Bang Ok-sook*, *Lethal to Those Without Real Estate*)

논문투고일 : 2025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6일